

10월의 기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6년 10월 10일 미국 LA 나성순복음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베데스다대학교 개교40주년 축복예배를 개최합니다.
 10월 12, 13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의 세계복음화기도센터(E.W.P.C)에서 세계교회성장대회(C.G.I.)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끼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원소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위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 가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만이 그러한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처처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쌓이고 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겉으로 웃으나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위로의 근원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고통 많은 세상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함으로 상대방을 치료하고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없는 점점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로는 없으면 세상은 더 많은 폭력과 살인 그리고 자살이 일어나 끝없는 고통이 계속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길로 걸어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될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통하여 세상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아시아 축복을 위한 일본성회

해피 콘서트 (Happy Concert)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9월 19일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축복을 위한 일본성회 해피 콘서트'에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성회는 순복음동경교회(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 주최하고 DCEM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순복음선교회 동북아시아 총회장 김유동 목사의 강사소개에 참석자들은 모두가 기립하여 조용기 목사를 환영했다.

'그리스도의 복음'(행 8:4-8)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께서 2천년 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시간 구원함을 얻고, 질병이 치유함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며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기독교의 복음은 희망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한다. 우리에게는 예수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며 우리의 생각, 꿈, 믿음, 말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오랜 시간 일본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심 없이 달려왔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고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 일천만 구령운동을 위해 다같이 함께 하자"며 순복음동경교회가 일본 복음화와 아시아 부흥을 위해 성회를 개최하는 등 40여 년 간의 한결같은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를 주최한 순복음동경교회는

매년 출석 성도 수가 15~20%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참석자 수는 2000여 명이며, 주일 예배 3000명 성도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구역장은 현재 182명이며, 300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에는 한국인, 일본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성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의미로 주보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모든 예배는 3개 국어로 진행된다.

성회를 주최한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우리 순복음동경교회는 숫자를 추구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라고 밝혔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9~10절)

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래 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집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녁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가는데,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성경을 펼쳐 저녁에 설교할 것을 다시 한 번 목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지하철이 딱 서더니 사람들이 다 내려서 갈아타요. 나도 따라서 일어나 버리니깐, 무릎 위에 있던 가방 속 물건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둥지둥 주워 담고 있는데 그만 지하철이 출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단강산이네요. 내 잠옷도, 칫솔도 사람들의 발에 걸려서 밟혔고, 정신없이 무조건 주워 담아놓고 난 다음에 보니깐 이제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요. 저녁에 설교도 해야 되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큰일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부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촌놈입니다. 지리도 모르고 상황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좀 살려주소”라고 기도를 했더니, 한 사람이 내 등을 탁 쳐요.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고 물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갑니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가 밑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라고 했더니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네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무섭게 생긴 흑인이었어. 내가 한국서 듣기를 뉴욕에는 깡패가 많아서 잘못 걸리면 벌거벗겨 쫓겨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예’도 못하고 ‘아니요’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깐 “나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도와 줄 테니까 날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서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니 빨리 내리십시오”라며 나를 내려놓고 자신은 곳바이 하면서 가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좋은 사람이다. 고맙다고 말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뛰어 교회에 들어가니까 예배가 막 시작되어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지하철에서의 이야기를 하니깐 “참 다행이라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고. 보통 그런 사람에게 붙잡히면 있

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는데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3.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은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씻는 보혈을 예비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으로 받은 죄악을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쌓은 허물의 죄도 씻어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치료의 은혜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듯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병을 미워하고 병 없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으면 올라갈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준비된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배필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예비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살 곳도 예비하셨습니다. 에덴동산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고, 죽어서 장례 지내는 그 사이의 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날 때뿐 아니라 만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2.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도 끝까지 참지 못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

세계교회성장대회(C.G.I.) 2016 미국



세계교회성장대회(CGI: Church Growth International)는 조용기 목사가 성경적 가르침과 가정 셀 조직 등 교회 성장 노하우를 전 세계 교회와 공유하기 위해 1976년 설립한 단체다. 184개국 1만 8000여 명의 목회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매년 콘퍼런스를 열고 교회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전세계 목회자와 공유하고 있다. CGI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목회자 중에는 교회성장에 대한 비전을 품고 교회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폭발적 부흥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CGI 콘퍼런스는 한해는 회원국에서, 그 다음해는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세계교회성장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70개국 2155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이 기도대성회, 세미나, 구역예배 참관 등에 참여하며 교회 성장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안고 돌아갔다. 올해 2016년 세계교회성장대회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10월 8~13일까지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빌(Louisville)에 위치한 세계복음화기도센터(Evangel World Prayer Center, 담임목사 밥 로저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 미주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생 및 일반 성도 등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조용기 목사는 10월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4차원의 영성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참석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번 성회가 개최되는 세계복음화기도센터(Evangel World Prayer Center)는 켄터

키 최대의 도시 루이빌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1만 여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밥 로저스는 세계교회성장대회(C.G.I.)이사이며, 금식과 기도로 교회 부흥을 일궈낸 대표적인 목회자다. 20명이 전부였던 작은 교회가 1만여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유를 로저스 목사는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대답했다. ‘금식, 그리고 기도’라고. 밥 로저스 목사가 금식과 기도를 자신의 목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된 배경은 목회자이신 부친 ‘레이몬 L. 로저스’와 함께 1972년 조용기 목사와故 최자실 목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부친과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은 로저스 목사는 최자실 목사를 통해서 교회 부흥의 비밀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한다.